

##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출애굽기 —

장석정\*

### 1. 출애굽기 1:1

#### 1.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sup>5</sup>

וְאֵלֶּה שְׁמֹת בְּנֵי יִשְׂרָאֵל הַבָּאִים מִצְרָיָם אֲתָּה יַעֲקֹב אִישׁ נְבִיחָה בָּאָה:

『구역』

이스라엘 모든 아들이 각각 그 권속을 데리고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르렀는데 그 이름이 이러하니

『개역』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개역개정』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새번역』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공동개정』

야곱을 따라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새한글』

이름들은 이러하다. 야곱과 함께 저마다 집안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온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다.

KJV

Now these are the names of the children of Israel, which

\*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 구약학 교수. schang15@cku.ac.kr.

came into Egypt; every man and his household came with Jacob.

ESV **These are the names** of the sons of Israel who came to Egypt with Jacob, each with his household:

NET **These are the names<sup>1)</sup>** of the sons of Israel who entered Egypt — each man with his household entered with Jacob:

ZB **Und dies sind die Namen** der Söhne Israels, die nach Ägypten gekommen waren; mit Jakob waren sie gekommen, jeder mit seinem Haus:

LB **Dies sind die Namen** der Söhne Israels, die mit Jakob nach Ägypten kamen; ein jeder kam mit seinem Hause:

BB Die Söhne Israels waren nach Ägypten gekommen, zusammen mit ihrem Vater Jakob und jeder mit seiner Familie. **Das sind ihre Namen:**

## 1.2. 『새한글』의 번역이 달라진 부분에 대한 설명

(1) 출애굽기 1:1에서 기존의 번역과 달라진 점은 어순입니다. **וְאֶלְלהָ שְׁמוֹת בְּנֵי אֶלְאָלָה**(웨엘레 셰모트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다.’)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말 성경들은 최초의 번역 성경인 『구역』부터 『개역개정』까지 이 부분을 1절의 맨 끝에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שְׁמוֹת**(쉐모트, ‘이름들’)이기 때문에, 더욱 히브리어 성경의 출애굽기 1:1의 처음에 나오는 이 구절은 그 어순에 있어서 마땅히 맨 앞에 위치해야 할 것입니다.

(2) 영어 성경들을 보면 KJV, ESV, NET에서도 ‘These are the names’라는 번역이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들의 경우에는 ZB와 LB는 ‘이름들은 이러하다(Dies sind die Namen).’를 문장의 맨 앞에 배치하고 있지만, 유독 BB는 문장의 맨 끝에(‘Das sind ihre Namen’)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새한글』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을 따라서 ‘이름들은 이러하다.’를 1절의 맨 앞에 위치시켰으며, 기존의 한글 성경들의 번역들도 참고해서 이것을 1절의 맨 뒤에도 위치시켜서 이중적인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히브

1) NET 각주 “The name of the book of Exodus in the Hebrew Bible is **שְׁמוֹת**(sh°mot), the word for ‘Names,’ drawn from the beginning of the book.”

리어 성경의 장점도 유지하고, 2절에 이어지는 야곱의 아들의 이름들의 도입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문장의 맨 끝에도 반복해 넣었습니다.

## 2. 출애굽기 1:16

### 2.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sup>5</sup>	וַיֹּאמֶר בְּיַלְדָּכְנוּ אֶת־הָעֲבָרִיּוֹת וְרַאֲתֶנּֽוּ עַל־הָאָבָנִים אֲסִמְּבָן הוּא וְהַמְּתָן אֲתָוּ וְאַסְמִיבָת הִיא וְתִּרְאֶה:
『구역』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의 산파 노릇을 할 때에 그 <u>낳는 것을 보아</u> 만일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리 라 하니
『개역』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u>살</u> <u>펴서</u>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개역개정』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에 <u>그 자리를 살펴서</u>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 든 살려두라
『새번역』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u>잘 살펴서</u> ,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공동개정』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에, <u>사타구니를</u> <u>보고</u>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새한글』	임금이 말했다. “히브리 여자들의 아이를 받을 때, <u>아</u> <u>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u>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 면 살려 주어라!”
KJV	and he said, When ye do the office of a midwife to the Hebrew women, and <u>see them upon the stools</u> ; if it be a son, then ye shall kill him: but if it be a daughter, then she shall live.
ESV	“When you serve as midwife to the Hebrew women and <u>see them on the birthstool</u> , if it is a son, you shall kill him, but if it is a daughter, she shall live.”
NET	“When you assist the Hebrew women in childbirth, <u>observe at the delivery</u> <sup>2)</sup> : If it is a son, kill him, but if it is

2) NET 각주 “Heb ‘at the birthstool’ (cf. ASV, NAS, NRS), but since this particular item is not especially well known today, the present translation simply states ‘at the delivery.’ Cf. NIV

a daughter, she may live.”

- ZB und sagte: Wenn ihr die Hebräerinnen entbindet, **gebt acht bei der Geburt**(출생에 주의를 기울여라): Ist es ein Sohn, so tötet ihn, ist es aber eine Tochter, so kann sie am Leben bleiben.
- LB Wenn ihr den hebräischen Frauen bei der Geburt helft, **dann seht auf das Geschlecht**(그러면 성별을 살펴라). Wenn es ein Sohn ist, so tötet ihn; ist's aber eine Tochter, so lässt sie leben.
- BB »Wenn ihr den Hebräerinnen helft, **achtet bei der Geburt auf das Geschlecht**(출생 시 성별을 살펴라)! Ist es ein Junge, dann tötet ihn. Ist es ein Mädchen, dann darf es leben.«

## 2.2. 『새한글』의 번역이 달라진 부분에 대한 설명

(1) 출애굽기 1:16의 번역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על־הָאָבָנִים**(레이텐 알 하오브나임)인데, 이는 ‘분만대에 그들이 있는 것을 보면’으로 번역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분만대로 이해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הָאָבָנִים**(하오브나임)인데, 직역하면 ‘두 개의 돌’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산모들이 해산할 때 분만대로 사용한 것이 이 두 개의 돌이며, 산모는 해산을 위해서 이 돌들 위에 두 다리를 올려놓게 됩니다.

(2) 영어 성경들은 ‘see them upon the stools’(KJV), ‘see them on the birthstool’(ESV)이라고 번역해서 히브리어 본문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NET의 ‘observe at the delivery’라는 번역은 아래에서 살펴볼 『구역』의 번역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독일어 성경들의 경우에는 ‘출생’ 혹은 ‘성별’에만 초점을 맞춰서 번역하고 있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아이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을 죽일 수 있다는 임금의 명령이 번역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최초의 한글 성경인 『구역』에는 ‘그 낳는 것을 보아’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이해가 매우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산모들이 해산하고 있는 순간에 아이의 성별을 확인해서 아들이면 죽이라는 것이 임금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는 19절에서 산파들이 히브리 아들들을 살려준 이유에서 드러납니다.

---

‘delivery stool.’”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다릅니다. 힘이 좋아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를 낳습니다.’(『새한글』) 결국 산파들은 아이를 낳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없어서 아이를 죽일 수 없었다고 대답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임금은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렇게 『구역』에서 히브리어 본문을 제대로 번역했던 구절이 『개역』에서는 난데없이 ‘살펴서’로 수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뭘 살피라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 버렸고, 현재 한국교회 대부분이 사용하는 『개역개정』에서는 ‘그 자리를 살펴서’로 번역하기에 이릅니다. 히브리어 본문의 뜻이 전혀 알 수 없도록 번역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한글』에서는 ‘아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로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함은 물론이고, 19절에서 산파들의 대답이 문맥에서 보다 잘 이해되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 3. 출애굽기 2:25

#### 3.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sup>5</sup>	וַיַּרְא אֱלֹהִים אֶת-בָּנִי יִשְׂרָאֵל וַיַּדַּע אֱלֹהִים:
『구역』	이스라엘 자손을 <u>하감하시며 통촉하시더라</u>
『개역』	이스라엘 자손을 <u>권녕하셨더라</u>
『개역개정』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u>돌보셨고</u> 하나님이 그들을 <u>기억하셨더라</u>
『새번역』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u>보시고</u> , 그들의 <u>처지를 생각하셨다</u> .
『공동개정』	이스라엘 백성을 <u>굽어살펴 주셨다</u> .
『새한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u>보셨고</u> , 하나님이 <u>아셨다</u> .
KJV	And God <u>looked upon</u> the children of Israel, and God <u>had respect</u> unto them.
RSV	And God <u>saw</u> the people of Israel, and God <u>knew</u> their condition.
ESV	God <u>saw</u> the people of Israel — and God <u>knew</u> .
NET	God <u>saw</u> <sup>3)</sup> the Israelites, and God <u>understood</u> . <sup>4)</sup>

3) NET 각주 “Heb ‘and God saw.’”

4) NET 각주 “Heb ‘and God knew’ (עָדָה, yada'). The last clause contains a widely used verb for knowing, but it leaves the object unexpressed within the clause, so as to allow all that vv. 23-24

ZB	Und Gott <b>sah</b> auf die Israeliten, und Gott <b>nahm</b> sich ihrer <b>an</b> .
LB	Und Gott <b>sah</b> auf die Israeliten und <b>nahm</b> sich ihrer <b>an</b> .
BB	Gott <b>wandte</b> sich den Israeliten <b>zu</b> und <b>kümmerte</b> sich um sie.

### 3.2. 『새한글』의 번역이 달라진 부분에 대한 설명

(1) 이 구절에서 특징적으로 달라진 번역은 사실은 처음부터 기본적인 히브리어 본문에 사용된 동사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했다면 달라질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25에서는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אָנָה**(와야레) 동사와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יָדַע**(와예다으)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개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의역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와는 다르게 ‘돌보다’와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본래의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를 소개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2) 이 경우에는 『구역』의 ‘이스라엘 자손을 하감하시며 통촉하시더라’라는 번역이 현대인들에게 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개역』의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는 번역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경우에 히브리어 동사의 뜻을 그대로 잘 번역한 것은 ESV입니다. 또한 RSV의 경우에도 ‘saw, knew’로 히브리어 본문에 사용된 동사를 제대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새한글』에서는 히브리어 동사의 뜻을 의역하지 않고 ‘보다’와 ‘알다’의 넓은 의미가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번역한 것입니다. **יָדַע אֶלְהִים אֶת־בְּנֵי יִשְׂרָאֵל** **וַיְדַע אֱלֹהִים** (와야레 엘로힘 에트 베네 이스라엘 와예다으 엘로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셨고,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본문의 본래적인 의미를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번역이 된 것입니다.

---

have described to serve as the compelling content of God's knowing.” 많은 현대 영어 번역 성경들은 LXX를 따라 동사의 목적어를 넣어서 “그들을 알았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 4. 출애굽기 3:14

##### 4.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sup>5</sup>	וַיֹּאמֶר אֱלֹהִים אֶל-מֹשֶׁה אֹהֶה אֲשֶׁר אֹהֶה וַיֹּאמֶר כֵּה הָאָמֶר לְבָנַי יִשְׂרָאֵל אֲהָדָה שְׁלֹחַנִי אֶל-יִצְחָק:
『구역』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u>나는 자연히 있는 자라</u>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 를 <u>자연히 계신 이</u> 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 시고
『개역』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u>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u> <u>라</u>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 기를 <u>스스로 있는 자</u> 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개역개정』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u>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u> <u>라</u>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 기를 <u>스스로 있는 자</u> 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새번역』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 <u>나는 곧 나다</u> .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 <u>나’라고 하는 분</u> 이 너 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공동개정』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 <u>나는 곧 나다</u> .” 하고 대답하 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 신 분은 ‘ <u>나다</u> .’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이라고 이스라 엘 백성에게 일러라.”
『새한글』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 <u>에헤아세르에헤(나</u> <u>는 스스로 있는 자다</u> <sup>5</sup> ).”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 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렴. ‘ <u>에헤(스스로 있는</u> <u>자</u> <sup>6</sup> )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KJV	And God said unto Moses, <u>I AM THAT I AM</u> : and he said, Thus shalt thou say unto the children of Israel, <u>I AM</u> hath sent me unto you.
ESV	God said to Moses, “ <u>I AM WHO I AM</u> . <sup>7</sup> And he said, “Say this to the people of Israel: ‘ <u>I AM</u> has sent me to you.’”
NET	God said to Moses, “ <u>I AM that I AM</u> . <sup>8</sup> And he said,

5) 『새한글』각주 “또는 ‘내가 있고 싶은 대로 내가 있으리라’, ‘나는 나다’”

6) 『새한글』각주 “또는 ‘내가 있으리라’”

7) ESV 각주 “Or *I am what I am, or I will be what I will be*”

8) NET 각주 “The verb form used here is **הָיָה** (*ehyeh*), the Qal imperfect, first person common singular, of the verb **הָיָה** (*hayah*, ‘to be’).”

“You must say<sup>9)</sup> this to the Israelites, ‘I AM has sent me to you.’”

- ZB Da sprach Gott zu Mose: Ich werde sein, der ich sein werde. Und er sprach: So sollst du zu den Israeliten sprechen: Ich-werde-sein hat mich zu euch gesandt.
- LB Gott sprach zu Mose: Ich werde sein, der ich sein werde. Und sprach: So sollst du zu den Israeliten sagen: »Ich werde sein«, der hat mich zu euch gesandt.
- BB Da sprach Gott zu Mose: »Ich werde sein, der ich sein werde.« Das sollst du den Israeliten sagen: Der »Ich-werde-sein« hat mich zu euch geschickt.«

#### 4.2. 『새한글』의 번역이 달라진 부분에 대한 설명

(1)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반부의 **הָאֵשֶׁר אָנֹכִי אֲנֹכִי**(에혜 아세르 에혜)에 대한 번역이 특히 문제로 대두됩니다. 물론 후반부에 나오는 **הָאֵשֶׁר**(에혜)라는 단어도 번역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반부의 표현을 기준의 성경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개역개정』), ‘나는 곧 나다.’(『새번역』)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2) 최초 한글 성경인 『구역』은 ‘나는 자연히 있는 자라’, 『개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말 성경들은 일관성 있게 이 구절을 우리말로 번역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우리말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들(‘I am who I am’)과 독일어 성경들(‘Ich werde sein, der ich sein werde’)에서도 이런 경향은 똑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그렇지만 3:14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3:15에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인 **הָאֵלֶּה**(야훼)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이 소개된 것도 아닌 3:14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표현을 굳이 그 뜻을 풀이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새한글』의 번역에 있어서는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새한글』에서는 히브리어 본문 그대로를 우리말로 표기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한 것입니다.

9) NET 각주 “Or ‘Thus you shall say’ (also in the following verse). The word ‘must’ in the translation conveys the instructional and imperative force of the statement.”

“에혜아세르에혜(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렴. ‘에혜(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번역함으로써 원래 히브리어의 발음도 성도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괄호 안에 그 의미를 밝혀주고, 각주를 통해서는 또 다른 번역 선택도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 5. 출애굽기 4:8

### 5.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sup>5</sup>

וְהִיא אֶמְלָא יְאִמְרִינָה לְךָ וְלֹא יִשְׁמַע לְכָל חָנָת חָרָשָׁן  
וְהַאֲמִינָה לְכָל הָאָתָה הַתְּחִרְנוֹן:

『구역』

또 가라사대 저가 만일 너는 믿지 아니하고 처음 이적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말을 믿으리라

『개역』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sup>10)</sup>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sup>11)</sup> 믿으리라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sup>12)</sup>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sup>13)</sup> 믿으리라

『새번역』

“그들이 네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sup>14)</sup>,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sup>15)</sup> 믿을 것이다.

『공동개정』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네가 보이는 첫 증거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둘째 증거를 보고는 믿게 될 것이다.

『새한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고, 이전의 증표가 말해 주는 것을 듣지 않더라도, 나중의 증표가 말해 주는 것은 믿을 것이다.

10) 『개역』 난외주 “소리를 듣지”

11) 『개역』 난외주 “소리는”

12) 『개역개정』 난외주 “히, 소리를 듣지”

13) 『개역개정』 난외주 “히, 소리는”

14) 『새번역』 난외주 “히, ‘소리를 듣지 않는다’”

15) 『새번역』 난외주, “히, ‘소리는’”

KJV	And it shall come to pass, if they will not believe thee, neither hearken to <u>the voice of the first sign</u> , that they will believe <u>the voice of the latter sign</u> .
RSV	“If they will not believe you,” God said, “or heed <u>the first sign</u> , they may believe <u>the latter sign</u> .
ESV	“If they will not believe you,” God said, “or listen to <u>the first sign</u> , they may believe <u>the latter sign</u> .
NET	“If they do not believe you or pay attention to <sup>16)</sup> <u>the former sign</u> , then they may believe <u>the latter sign</u> . <sup>17)</sup>
ZB	Wenn sie dir aber nicht glauben und auf <u>das erste Zeichen</u> nicht hören, werden sie <u>dem zweiten Zeichen</u> glauben.
LB	»Wenn sie dir nun nicht glauben und nicht auf <u>das erste Zeichen</u> hören werden, so werden sie doch auf <u>das andre Zeichen</u> hören.
BB	Da sagte Gott: »Es mag sein, dass sie dir nicht glauben und <u>das erste Zeichen</u> sie nicht überzeugt. Doch auf <u>dieses Zeichen</u> hin werden sie glauben.

## 5.2. 『새한글』의 번역이 달라진 부분에 대한 설명

(1) 이 구절은 그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생략되고 번역되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에 사용된 **הִיאַת הַרְאָתָן** **לִקְ**(콜 하오트 하리손)이라는 표현과 **הִיאַת הַרְאָתָן** **לִקְ**(콜 하오트 하아하론)이라는 표현의 경우에 있어서 앞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לִקְ**(콜)이라는 단어는 명확하게 ‘소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이적의 소리’와 ‘나중 이적의 소리’라고 직역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번역은 ‘그 처음 표적의 표징’(『개역개정』), ‘첫 번째 이적의 표징’(『새번역』) 등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영어 성경의 경우를 보면 ‘the first sign’(ESV), ‘the former sign’(NET)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역시 **לִקְ**(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전혀 번역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1611년에 번역된 KJV의 경우에는 ‘the voice of the first sign’이라고 히브리어 본문을 정확하게 번

16) NET 각주 “Heb ‘listen to the voice of,’ meaning listen so as to respond appropriately.”

17) NET 각주 “Heb ‘believe the voice of the latter sign,’ so as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meaning of the event.”

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번역한 KJV의 번역이 어찌 된 일인지 현대의 영어에 있어서는 1952년에 번역된 RSV에 있어서도 ‘the first sign’이라고 수정되어 번역되어 있으며, 그 이후의 영어 성경들(ESV, NET)도 이런 번역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다고 하겠습니다.

(3) 히브리어 단어 **מָרֵא**(오트)는 시각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적’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에서 청각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단어로 인식됩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 이적이 보여주는 시각적 현상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각적인 이적이 아니라 청각적인 기능을 하는 이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 이와는 대조적으로 1911년에 번역된 『구역』은 놀랍습니다. ‘처음 이적의 말을 듣지 아니 **하**여도 둘째 이적의 말을 **밋**으리라.’ 현대어로 고치면 ‘처음 이적의 말’과 ‘둘째 이적의 말’이라고 번역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לִקְרָב**(콜)이라는 단어를 잘 살려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은 이미 20세기 초에 히브리어 본문이 담고 있는 이적의 ‘청각적 기능’을 인지해서 우리말 번역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에 『새한글』에서도 이런 우리 조상들의 올바른 번역을 그대로 전수받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증표가 말해 주는 것’이라는 번역을 통해서 우리는 『구역』이 이미 해 놓았던 참된 번역을 다시 부활시킨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주제어>(Keywords)

『새한글성경』, 출애굽기, 해설, 히브리어 성경, 번역.

New Korean Translation, Exodus, Commentary, Hebrew Bible, Translation.

(투고 일자: 2025년 2월 27일, 심사 일자: 2025년 3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3월 28일)